



전기안전공사 전국 순회 어린이 뮤지컬 막 올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일 전북 완주군 분사 새울림홀에서 2025 어린이 전기안전 뮤지컬 '미리야! 찌릿찌릿 패지코'를 조심히 시범공연을 열었다고 밝혔다.

공연에는 전기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패지코' 때문에 위험에 빠진 전기안전수호대가 출연한다. 전기안전공사 대표 캐릭터로 구성된 전기안전수호대가 '패지코'의 위험한 장난을 막아내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전기 사용법을 어린이 관객들에게 자연스럽게 알려준다.

이날은 전북 전주·완주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유아(3~7세) 200여 명이 공연이 열린 전기안전공사 분사 새울림홀을 방문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어린이집·유치원별로 모여 주요 캐릭터와 포토샷을 진행하기도 했다.

2006년 처음 시작한 전기안전 뮤지컬 순회공연은 전기안전공사가 매년 시행하는 생애주기별 안심 맞춤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오상근 기자



대한철물건재, 김제시에 매월 50만원 정기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대한철물건재(대표 유동형, 최문영 부부)가 지난 2일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50만 원씩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기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한철물건재는 지난 8년간 장애인종합복지관에도 매월 1만 원씩 정기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꾸준히 지원해 왔다.

이번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한부모가정을 직접 돕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으며, 기탁된 성금은 관내 한부모가정 2세대에 매월 20만 원씩 전달되어,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제=곽노태 기자



남원 가인공방, 죽향동 어려운 이웃에 파자마기부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임정숙)는 지난 2일, 관내 봉제업체 가인공방(대표 김혜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파자마 50벌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의류 구매가 부담스러운 저소득 가정과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 기부된 파자마는 '1일 1가구 소품 행사'를 통해 취약계층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혜경 대표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며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동동동, 취약계층 대상 밀반찬 나눔

남원시 동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가구 소품행정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내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밀반찬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노인, 장애인 등 17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2회 정성껏 준비된 밀반찬과 따뜻한 국을 직접 가정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정서적 교류까지 실천하고 있어, 민관 협력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는 든든한 지역복지 공동체로 자리매김 중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갈증해소 위한 '시원한 하루' 동행

이숙자 남원시의원, 시민 제공 민원 확인 · 조치

남원시 의회 이숙자 의원이 시민이 제공한 민원을 직접 확인하고 조치하며 환영받았다.

최근 남원시 안전재난과와 시 자율방재단에서는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원한 하루' 사업을 추진, 얼음생수 3만병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폭염 시 행동요령 및 열염질환 예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장소는 전통시장, 버스정류장 등 시민들의 주요 거점 이용 장소에서 시행해 큰 호응을 얻었으나, 학생들이 하교하는 정류장이나 부모님 기다리는 대기 장소에는 없어, 한 시민이 이숙자 시의원에게 사실을 제보, 이 의원은 직접 현지를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통보해 추가로 중앙초 후문 놀이터 등에도 배치해, 방과후 아이들과 주민들은 시원한 물을 마시며 갈증 해소에 웃음꽃이 피었다는 전언이다.

한편 이숙자 의원은 "시민들의 요청에 적극 나선 관련 기관에 감사를 전하며, 내년 여름에는 더 많은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시원한 하루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을 부탁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 안전재난과에서는 "무더위에 지친 시민들이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낄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적절한 수요 파악을 통해 비치장소와 방법 등을 강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무주군,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회전 수상... 수상생 7명 영예

무주군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이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한 2025년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회전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다.

수상자는 글쓰기에 '다시 또 엄마'를 출품했던 강오례, 글꽃상(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상)에 '글은 뜨다'를 출품했던 최오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에는 '주머니 완료되었습니다'를 출품한 정오화가 선정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장학진흥원장상은 '아버지 다리'의 김오자, '손으로 전하는 마음의 유전자' 서병비가 내립니다. 김오선 '오일장에 가다'의 이은하 등 4명이 받는다.

김성옥 무주군청 인구협력과장은 "무주군은 이번 시회전에 무주군민들례하고로 무주노인종합복지관 학습자들의 작품 12점을 출품해 7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되는 결실을 안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 '글은 뜨다' '주머니 완료되었습니다' 등 배움으로 얻은 감동을 소박하면서도 진심 어린 표현으로 완성한 작품들이 따뜻한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라고 밝혔다.

전국 성인문해교육 시회전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 문해의 날'을 기념해 대한민국 문해의 달'을 선포하며 개최된 것으로, 올해는 '문해, 세상이 달라 보여요'라는 주제로 전국의 성인문해교육 학습자들이 배움



의 기쁨을 시와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으로 자웅을 겨뤘다.

시상식은 오는 9월 30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한마당에서 진행되며 행사가 열리는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는 시회전 공모작 전시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무주군 성인 문해교육은 평생교육원 민들레학교와 무주노인종합복지관 등 27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200여 명이 초등학교인정반 등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군산시는 지난 1일부터 7일까지 이어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3일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시가 주최하고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안재원)가 주관하여 매년 진행되고 있다.

올해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양성평등 문화 확산과 존중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로 진행됐다.

행사는 신봉학교의 식전공연과 군산시여성단체협의회 활동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열었으며, 1부 기념식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식이 진행됐다.

올해 시장 표창은 △단체부문 원불교 군산지구 여성회(대표 안재원) △민간부문 이상숙 아이코리아 군산지회 회장·정정순 패트볼맘 군산지회 회장·한창규 회원 △공무원부문 최보람 군산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주무관이 수상했다.

아울러 군산시의회 의장상은 이현숙 대한적십자사 군산시



협의회 회장이, 국회의원상은 김선옥 한중여성교류협회 군산지회 회장이 받았다.

또한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바자회를 통해 마련한 수익금으로 지역 청소년 2명에게 장학금을, 기관 1곳에 후원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이어진 2부에서는 김광집 강사가 '내 기분은 내가 선택한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시민들과 성평등한 삶과 행복에 대한 공감대를 나눴다.

/군산=김민호 기자

부안군 민원과, 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후원 캠페인 전개

부안군 민원과과과장 허진상은 지난 2일 부안군농인재육성재단 장학기금 후원 독려 캠페인을 실시하며, 지역인재를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섰다.

이번 캠페인은 군민들과 가장 밀접한 접점을 가진 민원과가 찾아오는 민원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학기금 후원 참여를 적극 홍보하고, 지역사회 전반에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에 참여한 민원과와 △신속하고 진정된 민원 응대로 군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민원팀,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측량을 다루는 지적팀, △부동산 거래와 표준공시지가 등 토지 관련 제도를 책임지는 토지관리팀, △지적제조사들 통해 토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지적제조사팀, △건축인허가 및 신고를 담당하는 건축허가팀, △주택지원과 시책발굴을 통해 거주환경개선에 힘쓰는 주택관리팀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군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토지·지적업무 종합평가



에서 꾸준히 우수·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ARS 음성이 아닌 해당 업무 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민원처리에 대한 성실성, 정확성 등을 파악하는 민원해피콜 서비스의 연중 운영 등은 군민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주시설공단, 수영장 안전관리시스템 시연회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수영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공수영장을 운영하는 전국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자체 보유한 특허 기술의 보급에 나섰다.

공단은 최근 전국 30여 개 공기업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 덕진수영장에서 '수영장 안전관리 시스템 AI Pool Lifesaver(에이아이 풀 라이프세이버)' 시연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공단이 특허를 보유한 이 시스템을 전국 공공기관에 소개함으로써 기술 보급·확산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 배경과 경과를 소개하고, 시스템 구성과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순서로 행사는 진행됐다.

/권희성기자



농협은행 전북, 도 성공예금 적립기금 전달식 개최

NH농협은행 전북분부는 지난 2일, 전북도청에서 NH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 적립기금 5,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식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강태항 전북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과 구미희 초록우산 전북지역본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전달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NH함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예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분부와 전북도가 함께 마련하여 2024년 3월까지 관내 지역상생 특화 금융상품이다.

/오상근 기자



서울시티발레단 이사장, 김제시에 고향사랑 기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서울시티발레단 김광진 이사장이 3일 지정기부사업인 김제시 365일 24시간 아이돌봄센터 운영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서울시티발레단은 노원구에 위치한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2009년에 창단되어 대중에게 다가가기 쉬운 작품들을 공연해 발레 대중화에 힘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7월 4일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성우 송연화와 함께 대표작품 '잠자는 숲속의 미녀'를 선보이기도 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한일네트웍스엔지니어링 대표, 무주에 고향사랑기부

(주)한일네트웍스엔지니어링 김삼기 대표가 지난 2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5백만 원을 기탁해 훈훈함을 안겼다.

김삼기 대표는 "무주군과의 소중한 인연이 고향사랑기부로 결실을 맺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기부금이 지역별 시 무주군 발전의 토대가 되고 군민 행복의 동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주)한일네트웍스엔지니어링이 2024년부터 무주군 상수도 현대화 사업 및 유지 관리 용역을 수행해 맺은 인연이 기반이 된 것으로, (주)한일네트웍스엔지니어링은 그동안 무주군 급수구역 전체의 상수도 관망 유지 관리와 누수탐사를 통해 유수를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다.

/무주=전문선 기자